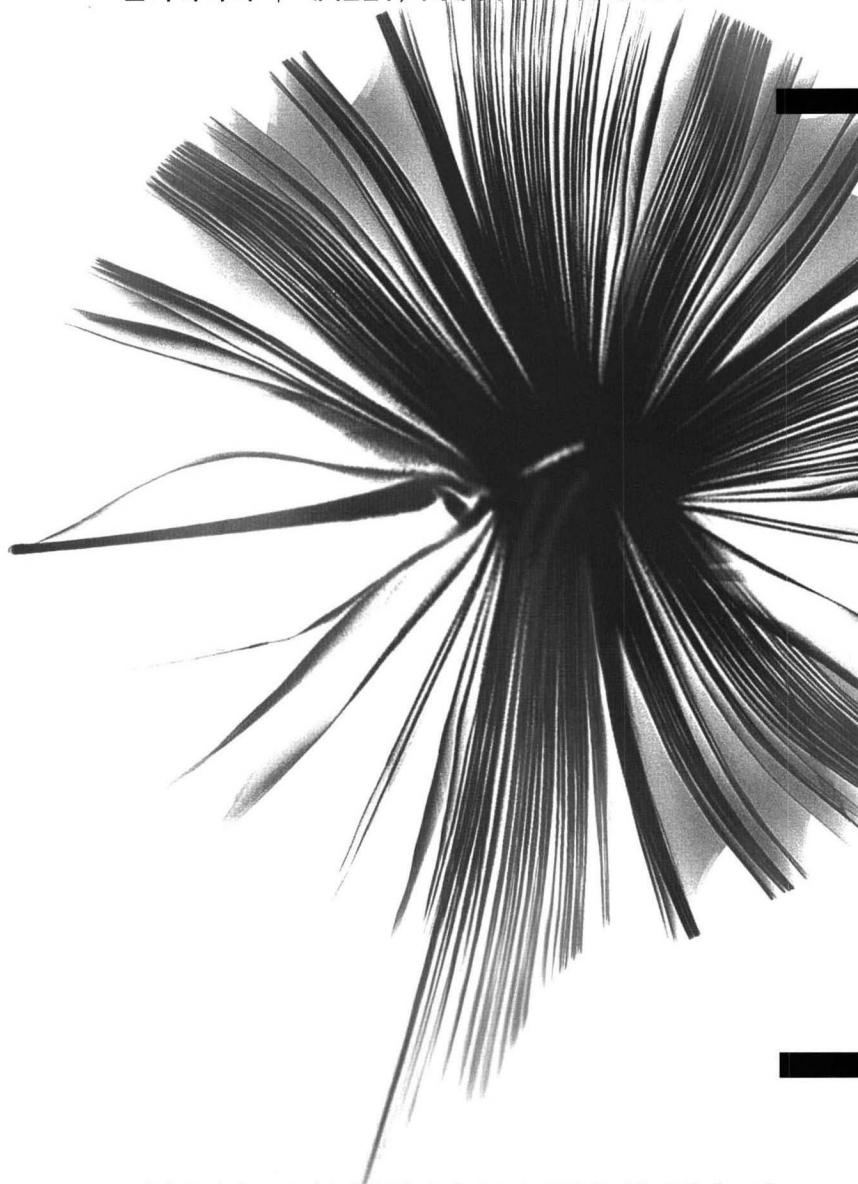


대학출판부에 더해진 「먹고사니즘」의 문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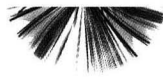


대학은 이제 고등 '인적지원'의 양성소라 했던가. '상아탑'의 고결한 덕목 따위를 압도하는 효율과 효용의 논리가 대학문화를 지배하는게 이젠 예사로운일이 됐다.

하긴 경쟁은 우리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아이콘이다. 과정이 함목적적이어야 하며, 실재가 관념보다 우위에 서야 하고, 추상보단 구체적형상이 대접받는데 오늘의 초상이다.

대학출판부는 그래서 갈등스럽다. 경쟁과 이윤의 신화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본연의 학구적 직분을 모독하지 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허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출판조직으로 거듭나라'며 이를 일축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어찌됐든 대학출판부는 기로에 서있다. '경쟁력 함양'이 공통의 슬로건이 되고, '아카데미즘과 먹고사니즘'을 충족시킬 묘수와 대안이 속출한다. 한편에선 명분과 실용의 우열을 따지는 논란도 분분하다. 대학출판부의 오늘과 내일, 과연 어떠해야 하나.



「지식·생산·보급·저장·기지」 왜야  
지친 노력과 정책 지원으로

# 대학출판부의 본질과 한국적 딜레마

유종근 | 건국대학교 출판부장·한국대학출판부협회 부회장

일반적으로 상업출판은 일반의 다중독자를 대상으로 무한한 출판의 영역을 건지한다고 할 때, 대학출판은 대학 내에 존속하면서 대학출판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기존 지식에 대한 끝없는 반성적 검증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한 지식의 증진, 확산 그리고 전수를 주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반포하여 보급시키는 것이 대학출판부 기능의 하나인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역할은 전문성을 띤 학술도서의 출판이며, 그리고 전문교재와 교양해설서를 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출판부는 그 몫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대학출판이 융성한 상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현상의 어려움이 있다. 어쩌면 출판부가 대학 내에서 어떻게 생존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홀로서기 할 것인가에 더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대학출판부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에 비해 대부분의 대학출판부는 조직의 종속성과 영세성, 비전문성, 재정적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출판활동을 하기 어려

운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출판인들의 노력의 저하로 변질되고 또 그렇게 간주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학출판이 공공조직인 대학조직 안에 있으며, 실제 기능면에서는 점차 일반 출판시장의 논리 안에 포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출판부는 대학 내에서는 채산성 있는 조직체이기를, 대학 외적으로는 문화기관이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반되는 기대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적 대학출판의 딜레마이다. 그러다보니 항상 '이상 따로 현실 따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급변하는 사회 및 출판환경은 대학출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수익조직체·문화기관, '두 얼굴'의 딜레마

얼마 전 모 일간지 편집자 레터에서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의 예를 인용한 글에서 '한 교수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 편집자가 6개월 동안 그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대목'을 보고 커다란 감명을 받은 일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출판부는 대학 내외에서 얼마나 커다란 위상을 가져야 하며, 조직과 기구 면에서 얼마나 큰 변신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그저 막막히 생각만 해야 하는, 그래서 안타까움만 잔뜩 잡아안은 적이 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대학출판부의 현실적 위상을 논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전통 있는 일부 주요 대학출판부들은 수준 있는 간행을 추진시킴으로써 대학출판의 패러다임을 형성시켰고, 일반 상업출판과의 관계에서 구별되는 특성으로 자리잡아온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일반출판사들처럼 출판인의 개성 있는 판단과 독창적 출판영역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전환기적 환경하에서 많은 대학출판부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재출판에만 주력하고 또한 그에 안주한 나머지 그보다 더 중요한 학술도서출판은 자연히 소홀히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출판의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인주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적 원인은 대학을 비롯한 국가 및 사회단체의 인식과 관심부족에서 오는 대학출판 환경의 열악함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출판부야말로 기본적 순수 출판활동으로서 상업출판과는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출판활동을 적절

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대학이 그 출판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없이 대부분의 대학출판부들의 자구적 노력을 기대해 온 현상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출판에 안겨준 기능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학출판인들의 진취적, 전문적이지 못한 출판활동의 부족에서 오는 전통적 진부성에 있다.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한국 대학출판부의 가장 취약점은 대학 내에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우선은 교육에만 최상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대학·국가의 관심부족... '출판부도 진부한 비전문성 탈피해야'

대학을 설치하는 데 도서관을 존치해야 하는 것이 요건 중의 하나라면, 이제 대학출판부도 대학설치령에 필수적 요소로 편입함으로써 대학출판부의 위상을 높인다면 지식의 생산, 보급, 저장의 3대 요소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전환적 계기로도 생각된다. 아울러 대학평가항목에도 일정 비율을 배정하여 대학출판부의 역할과 기능을 측정한다면 대학출판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교수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출판기획자인 앙드레 쉬프랭은 학술출판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적극 거론했다고 한다. “학술출판 유지는 국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엔 학술서가 지식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체이며, 이에 기반해서 한 사회의 전체 문화가 형성, 보존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술출판이 시장의 경쟁과 도태원칙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했다.

학술출판은 그 투자면에서 손실을 예정하는 사업이다. 위에서 언급한 앙드레 쉬프랭의 발언은 한국의 학술출판, 좁은 의미에서는 대학출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관심에 조그마한 촉매제라도 되었으면 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해 자꾸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주 미미하나마 우수도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는 있기 때문이다. 외람되지만 전국의 도서관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신간학술도서 일체를 구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소위 '도서관 도서보상금제'는 학술출판 활성화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대학출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라면 적어도 대학출판부에서 발행되는 신간 학술도서만이라도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학술출판 등 '손실 뻔한 투자' 정책적 보전·지원 필요

대학출판에 대한 언론의 몫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출판부를 너무 모르기도 하며 어찌면 관심 밖에 두고 있는 언론들도 많은 듯하다. 대학출판부들이 숨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학술출판뿐만 아니라 출판문화 전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부추겨 주고 끌어안아 주는 진정한 염려의 자세로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대학출판인들은 우수 기획물에 골몰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창출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생성 유통되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감안하면 출판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거시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출판부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발간 판매하는 부속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대학에서 생성되는 학문과 지식을 생산하고 결집해 내는 중요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출판부의 개념을 확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발전과 성장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대학출판부는 학술자료의 발간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서 등 학문을 창출해 내는 유관부서와 밀접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운영에 참여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학·대학출판부 힘모아 '대학지성의 보고' 돼야

그러나 그것은 대학출판부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서는 미흡하다. 우선은 모체인 대학이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나 교육정책기관과도 인식의 정도가 상이해서는 안 된다. 조직과 환경, 재정의 안정, 전문인의 육성, 기획력의 확보를 통해서 대학출판부가 대학지성의 보고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학술출판을 기저에 깔고 우수한 교양해설서를 꾸준히 기획 개발하여 한국의 대학출판부들도 선진국 대학출판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출판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대학출판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성원과 관련단체의 애정과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때쯤인가 “대학출판부는 이 나라 학술출판의 메카이며 출판의 핵심”이라는 말이 대학출판인들의 가슴을 울렸으면 한다. ☞